



현대백화점
글로벌 그룹과 협업
헬스케어 확대
L1

metro®

Life

“동물실험 대신
오가노이드 등
혁신기술 활용해야”
L2



100년 된 팽나무에 제주 정남까지 일상 속에 스며든 동화같은 풍경

아파트의 미학(美學)

영종베르힐 스카이스티

최근 찾은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베르힐 스카이스티’.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했다. 공항철도 운서역 1번 출구에서 221번 버스를 타고 도착하면 바로 앞에 단지가 보인다.

영종하늘도시 내 핵심주거권역인 운남생활권역에 들어선 단지로 자녀안심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근에는 영종중, 영종국제고, 인천하늘고, 인천과학고 등의 학교를 누릴 수 있다.

해안을 따라 들어선 ‘씨사이드파크’와 가깝고 백운산 녹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일부 세대의 경우 탁 트인 영종바다 조망도 가능하다. 노후 아파트(10년 이상) 비율이 22%로 비교적 낮음에도 입지상 운서와 중산 경계선에 위치해 양 생활권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대성건설이 시공한 영종베르힐 스카이스티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13개동, 총 1224세대 규모다. 가구 타입은 전용 면적 ▲84㎡A·AP·B·C·D로 단일 면적, 실속 단지로 구성됐다.

수도권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베르힐(VERTHILL)’ 브랜드가 적용됐다. 각 가구에는 사물인터넷(IoT)시스템 등 홈네트워킹 설비가 적용돼 입주민의 편의를 돕는다. 채광과 통풍이 유리한南向, 판상형(일자형으로 배치된 형식) 위주로 공급됐다.

영종하늘도시 내 운남생활권역 단지 해안, 백운산 녹지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경비율 50% 넘어… 대단지 규모 팽나무·수경시설 조성 ‘그로브가든’ 사계절 상록수 감상하는 ‘상록수원’ 잔디광장엔 따뜻한 가득한 조각상도

단지에는 영종베르힐 스카이스티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대단지 규모에 걸맞는 조경시설을 갖춰 커뮤니티광장과, 다양한 테마의 정원 등 입주민이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해 조경 비율이 50%를 넘는다.

단지 중앙에서 팽나무가 입주민을 반긴다. 고귀함을 뜻하는 팽나무는 대나무 대롱에 까만 열매(팽)를 넣어 쏘는 팽총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우리 조상들은 팽나무를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로 여겼다. 약 100살로 추정되는 이 팽나무는 전남 나주의 만석꾼 마을집 뒤뜰에 심겨져서 살다가 지난해 이 곳으로 옮겨졌다.

팽나무가 있는 곳엔 수경과 인접한 휴게공간 ‘그로브가든’이 있다. 그로브가든의 입구에는 정남이 설치돼 있다. 제주의 풍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삼무(三無)인 거지, 도둑, 대문이 없다는 것이다. 제주의 민가들 대부분이 입구인 울래에 ‘정주석’을 세우고 ‘정남’을 걸쳐 대문 역할을 한 것에서 착안했다. 이 곳의 정남은

집에 있음을 뜻하고 있다.

‘상록수원’에서는 사계절의 상록수를 감상할 수 있다. 정원 ‘플로팅 아일랜드’는 물의 흐름을 표현한 곡선의 산책로와 녹지섬들이 조성돼 있다. ‘단풍나무숲길’을 따라 이동하면 ‘대왕참나무 숲’도 만날 수 있다.

티하우스와 조형 분수를 연계한 감성 휴게공간 ‘잔디광장’에는 김경민 작가의 ‘라이프 스토리’라는 조각상들이 설치돼 있다. 평범한 일상에서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전달하며 입주민들에게 작은 행복과 기쁨, 감각적인 경험을 선물한다. 입주민에게 휴식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멋진 공간을 제공하며 이웃들에게 소통과 만남의 장소로 작용해 단지의 랜드마크 역할을 가진다.

야외에는 신체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레그프레스, 철봉, 위밍암, 풀웨이트 등의 운동 기구 등도 마련했다. 지하 1층의 커뮤니티 센터에는 키즈카페, 커뮤니티실, 독서실 등을 만들었다.

동심 가득한 놀이요소는 아이들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도한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설치돼 어린이에 대한 배려도 엿보였다. ‘매직트리’와 ‘해저탐험’ 등 다양한 테마의 공간은 아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파리월드’의 경우 실물과 같은 동물 표현으로 아이들의 모험심을 자극한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 1 상록수를 감상할 수 있는 상록수원
- 2 물의 흐름을 곡선으로 표현한 플로팅 아일랜드.
- 3 잔디광장 내 조각상 ‘라이프 스토리’
- 4 단지 중앙에 위치한 100년 된 팽나무.

/전지원 기자